

이원택 지사직 인수위장에 신형식 전 KBSI 원장

과학기술·지역혁신 분야 권위자... 인수위, 재생에너지·AI 중심 전북 대도약 청사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청사진을 설계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과학기술과 지역혁신 분야의 권위자인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원장(사진)을 인수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반도체 포장재료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의장과 전북민족예술단체연합회

이원택 당선인은 9일 민선 9기 도정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사진을 맡아 과학기술과 문화, 지역혁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이달 3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향후 4년간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평가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전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이원택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신형식 전 원장은 전주교과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MIT 연구교수로 활동한 학자 출신 과학기술 전문가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이원택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공약과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를 정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행복 등 5개 분야 체제로 운영된다.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담당하며, 체감 성장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도민 주권 분과는 주민 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글로벌 K 분과는 국제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민 행복 분과는 복지·교육·문화 정책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각 분야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야에는 박승대, 신형식, 임성진, 홍성

출, 임연호 위원이 참여한다.

체감 성장 분야는 김동열, 박진희, 박금옥, 윤미영 위원으로 구성됐다.

도민 주권 분과에는 허대성, 김보금, 김용섭, 이정린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K 분야는 이도현, 박일진, 이윤영 위원이 참여한다.

도민 행복 분야는 정정일, 문영희, 채현주, 기은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인수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허강무 위원장이 이끄는 5극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최영원 위원장의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 이동기 위원장의 20조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특히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는 이원택 당선인이 강조해 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원택 당선인은 "민선9기 인수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산업·경제·행정·복지·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단순한 도정 인수 절차를 넘어 전북의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학기술 전문가인 신형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AI 반도체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한 새로운 도정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첫 설계도인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20일 동안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크게 주목된다.

/이만호기자

15일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9대 마지막 회의인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9일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정례회를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기로 정하고,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부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의원 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15일 제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둬 수 있도록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의의로서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기자

이 사람 - 신형식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장

“전북의 미래 100년 설계, 어깨가 무겁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
태양전지 등 연구
미래산업 육성 방안
에너지 등 연구 진행
“미래산업 중심지
도약 최선 다할 것”

미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세계적 전문가인 그는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태양전지와 반도체 분야를 연구해 왔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세계 최고 공학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인 MIT대학교에서도 몇 년 전 1년 반 이상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MIT대학교 체류 당시에도 태양전지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전북형 에너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삶은 전북의 산골 마을에서 시작했다.

순창군 쌍치면 출신인 신 위원장은 쌍치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진학을 위해 어린 나이에 순창읍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다. 당시 쌍치에는 중학교가 없어 화업을 이 어가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작은 산골 마을 소년은 학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순창북중과 전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와 미국 유학의 길을 걸었고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연구자로 성장했다.

국립유학생으로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학업이 이어간 그는 “나라가 키워준 만큼 사회에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성장 과정은 전북 청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역에서 출발했다라도 꿈과 도전 정신이 있다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이번 인수위원회가 단순한 정권 인수 절차를 넘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지금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AI 산업, 반도체, 데이터센터, 그리고 208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까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동시에 모여 있다”며 “허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인수위원장 선임이 전부터 전북 미래산업 육성 방안과 에너지 정책, 지역혁신 성장전략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전북의 미래 성장축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에너지 산업, 반도체 연관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가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혁신으로 전북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만호기자



조지훈 당선인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구성과 출범을 발표했다.

민선9기 전주시정 밑그림 그리기 본격화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출범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전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돌입했다.

조 당선인은 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로 확정하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주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수위원회는 안국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전 부총장)를 위원장으로, 한동승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팔복동 전북특별자치도경제특성산업지원 4~5층에 마련한 것은 눈길을 끈다. 전주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에 인수위를 설치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인수위원회는 5개 분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시정혁신분과는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최한별 전북대학교 교수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시정 혁신과 행정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산업분과는 한동승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조용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회장과 민형선 하이하이징 대표가 참여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문화·예술분과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태영 예술시대 협동조합 이사가 참여해 문화 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돌봄·복지분과는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강현식 전북중증장애인가립생활센터 대표, 김서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영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정승은 전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효민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최광문 작가 겸 감독이 참여해 영화산업 육성과 국제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만호 기자

국토부, 새만금 AI·그린수소 산업 투자 속도전

김윤덕 장관 등, 중국·내몽골 방문해 수소산업 현장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을 인공지능(AI)과 그린수소 기반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순방단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국 베이징과 내몽골을 방문해 세계 최대 수소시장인 중국의 수소산업 생태계와 정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체결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순방단은 첫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의 다싱 국제 수소에너지 시범구를 방문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수소생태계를 살펴봤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스택(Stack) 생산기업과 세계적 규모의 수소충전소 운영기업을 방문해 기술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9일에는 중국 내몽골에 위치한 엔비전 세계 최대 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찾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활용

한 수전해 설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과 공급 인프라 구축 사례를 면밀히 살펴본 뒤 새만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확보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과 AI 기반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대표 수소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김성수 전 도지사 후보

김성수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일부 당원 징계 추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정당정치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을 받게 될 것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에 대해 해당 행위 징계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 도지사 후보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당규를 적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 가치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정 선

심판을 받게 될 것

를 지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과정의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답하기보다 징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판을 받게 될 것

그는 도당을 향해 보다 겸손한 자세와 열린 정치 문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도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정 선

/이만호 기자